

R 1월 ETF Insights

2024.12.26 KB자산운용 ETF상품기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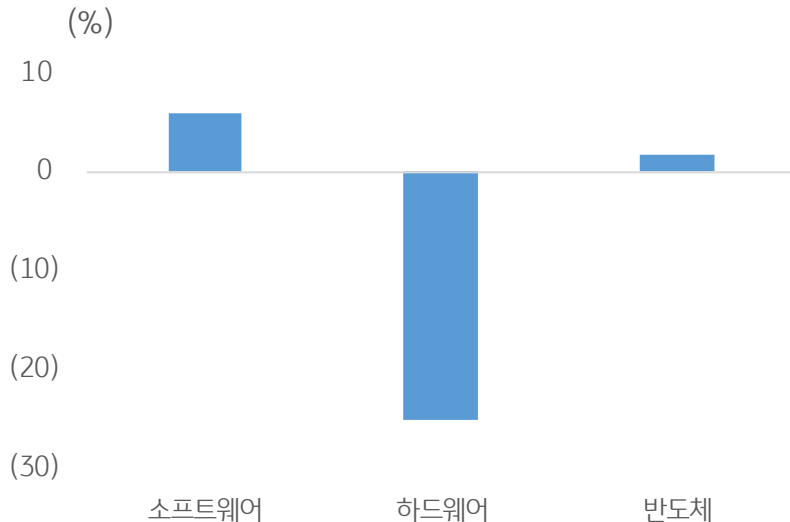
- 당사 준법감시인의 승인 번호가 없는 제안서는 당사 내부절차를 준수하여 정식 승인된 제안서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투자대상 에 대한 판매 직원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 로부터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정과 투자결과에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iseETF

R AI테마의 세분화. 넥스트 엔비디아는?

- 2024년 3분기 이후 AI 테마에서 변화 조짐 감지. 하드웨어 대비 소프트웨어의 주가 강세, 이익 전망치 상향 등이 나타남.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하드웨어의 모멘텀은 다소 약화된 반면,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등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상대성과 양호
- 2010년대 스마트폰 산업의 사례를 돌아해보면 산업 자체의 중장기 성장이 지속되며 세부 테마와 주도주가 시기에 따라 변화했음. 스마트폰 초기 등장했을 당시 애플 중심의 하드웨어가 주목받았음.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하드웨어를 대신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아마존),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이 다음 주도주 역할을 수행
-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AI도 중장기 성장을 지속하며 기술과 개념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산업 내 주도주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

3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준 소프트웨어



2010년대 초 스마트폰 관련 주도주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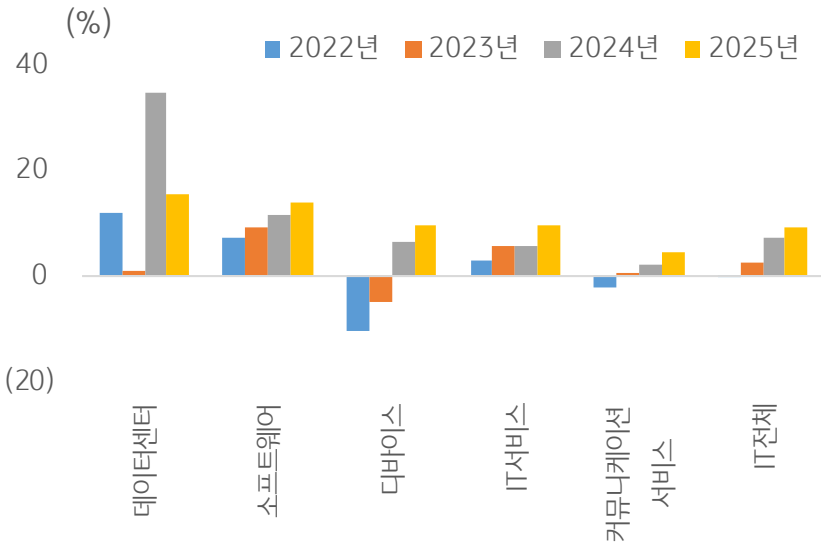
자료: Factset consensus, KB증권, KB자산운용
주: EPS 컨센서스 대비 실제 EPS의 비율

자료: Factset consensus, KB증권, KB자산운용

R AI테마의 세분화. 넥스트 엔비디아는?

- 소수 기업 중심의 성장 초기 단계를 지나 기술 경쟁 심화,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관련 주도주를 찾고 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센터,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AI수익 모멘텀이 입증되는 기업을 적시에 담을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AI 트렌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ETF 투자 전략?
- ▶ AI산업 내 핵심 3가지 밸류체인(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주요 기업들을 선별/투자하거나, 액티브 운용으로 차세대 AI관련 기업을 발굴해 포트폴리오에 담는 ETF에 주목

분야별 IT 업황 트렌드*. 국면별 바뀌는 주도주 대응 필요



자료: statista, KB자산운용
 주: 전세계 연간 분야별 IT 지출 트렌드. 전년대비 증감률

KB자산의 미국 AI 관련 ETF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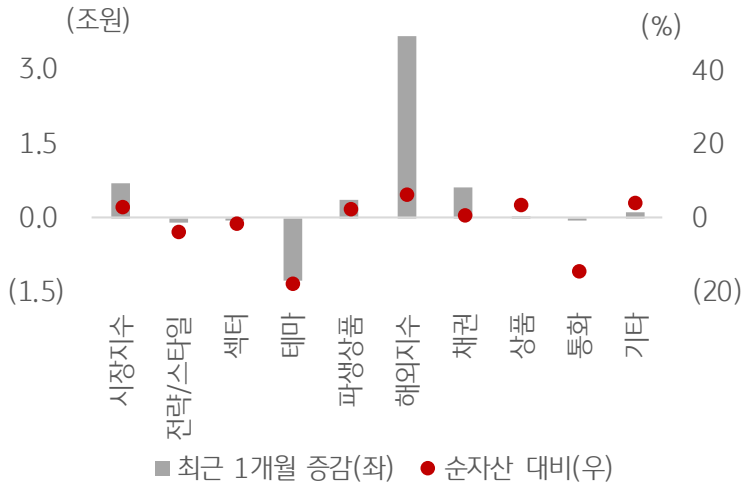
상품명	투자 위험등급	TER (연)	투자포인트
RISE 미국AI밸류체인 TOP3Plus	1	0.05%	글로벌 AI 선도 기업에 핵심 밸류체인(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인프라)별로 선별해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RISE 미국AI밸류체인 데일리고정커버드콜	1	0.30%	미국 AI밸류체인(기초자산)의 성장에 90% 참여하는 동시에 데일리 콜옵션 매도(커버드콜) 전략으로 월분배 추구
RISE 미국시테크액티브	2	0.51%	빅테크를 뛰어넘는 성장 여력,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는 차세대 시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액티브 운용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KB자산운용
 주: 12월 26일 기준

R 국내 ETF 시장 동향

- 국내 ETF 시장 규모는 170조원으로 11월 말 대비 약 4.2조원 증가. 탄핵 등으로 불거진 정치 리스크로 KOSPI 2,400선을 하회하며 국내주식-테마형에서 1.2조원 순감소했으나, 저가 매수 유입에 시장지수형으로 0.7조원 유입.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국 정치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 심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가 강화되며 해외 지수형 3.7조원 순증
- 미국의 견조한 매크로 환경, 물가 하향 안정 마무리에 2025년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4회→2회)가 축소 전망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이를 반영해 전체 채권형은 0.6조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파킹형, 존속기한형으로는 2조원 순유입
- 시테마가 세분화되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ISE 미국시테크액티브 ETF 등 관련 상품 2종목 추가 상장. 개별종목과 미국장기채를 혼합한 커버드콜 ETF와 양자컴퓨터 테마 ETF 등장. 한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에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로 12월에만 개인순매수가 257억원('12.01~'12.20) 유입되며 목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품도 출시

ETF 유형별 순자산 증감 현황



최근 1개월 주요 신규상장 ETF

금액(억원)

TIGER 미국필라델피아시반도체나스닥	1,508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1,351
BNK 26-06 특수채(AAA이상)액티브	1,058
파워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20
SOL CD금리&머니마켓액티브	644
TIGER 엔비디아미국채커버드콜밸런스(합성)	396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374
KOSEF 미국양자컴퓨팅	357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95
RISE 미국시테크액티브	249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93

※ 출처: KOSCOM, '24.12.20 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24.11.20~24.12.20 기준

R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접투자 현황

- 12월 FOMC의 점도표에서 2025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4→2회)가 줄며 미국채 변동성 확대. 전월까지 +3배, 일본상장 등 미국 장기채 관련 ETF 선호 지속됐으나, 12월 중 순위권 탈락. 금리 불확실성으로 증시 조정 받으며 S&P500, 나스닥100 등 시장 대표형 중심으로 순매수 유입. AI 소프트웨어 주도주들이 주목받으며 관련 매출 전망치를 상향한 PLTR(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신규 순위권 진입
- 신고가 경신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파월 의장이 Fed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부적합하다고 발언해 관련 자산 조정 흐름.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ETF는 34위로 순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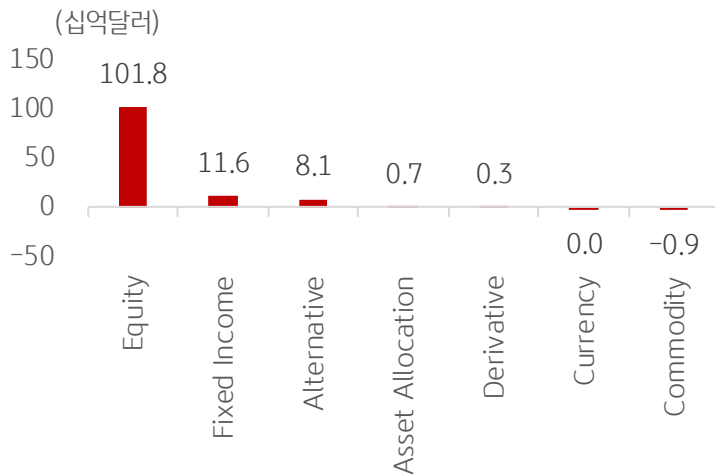
구분	유형별 순매수 상위 주요 ETF	개요	금액(백만달러)
시장대표	VANGUARD SP 500 ETF	S&P500	326
	INVESCO QQQ TRUST SRS 1 ETF	나스닥100	112
	SPDR PORTFOLIO SP 500 GROWTH ETF	S&P500 성장주	25
개별종목	T-Rex 2X Long MSTR Daily Target ETF	마이크로스트레티지 +2배	152
	TIDAL TRUST II DEFIANCE DAILY TARGET 1.75X LNG MSTR ETF	마이크로스트레티지 +1.75배	131
	GRANITESHARES 2.0X LONG NVDA DAILY ETF	엔비디아 +1.5배	52
	GNTSH 2XPLTR ETF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2배	43
채권/인컴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미국배당성장주	197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	美초단기채(~0.3년)	131
	TIDAL TRUST II YIELDMAX MSTR OPTION INCOME STRATEG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커버드콜	109
	TD YILDMX CN ETF	코인베이스 커버드콜	81
테마	2X ETHER ETF	이더리움 +2배	207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	소프트웨어	66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KB자산운용, '24.12.23 기준

R 미국 ETF 시장 동향

- 2024년 미국 ETF 순유입은 1조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최고 기록인 2021년 9,200억달러를 상회. 주식형 ETF는 전월대비 213억달러 증가한 1,018억달러였으며, 특히 미국 대형주로 자금 집중(주식형 ETF의 73%, 740억달러). 미국 중소형주 ETF 순유입액은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122억달러 유지. 글로벌 투자도 전월(14억달러) 대비 64억달러 늘었으나, 여전히 미국 중심 투자 트렌드 유효
- 12월 FOMC 이후 2025년 통화정책 강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섹터형 ETF에서 자금이 유출(-18억달러)됐으며, 방향성 투자도 감소.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 S&P500 등 대표지수형 상품에 투자해 시장 수익률을 추구
- 매파적 연준에 채권형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가 후퇴. 자본차익 가능성 줄어든 장기채는 전월(-22억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도(-64억달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12월 중 신고가 확인 후 조정받고 있으나, iShares Bitcoin Trust ETF(IBIT)은 1개월 순유입 상위 2위에 랭크. 암호화폐 ETF 순유입은 비트코인 79억달러, 이더리움 31억달러.

기초자산별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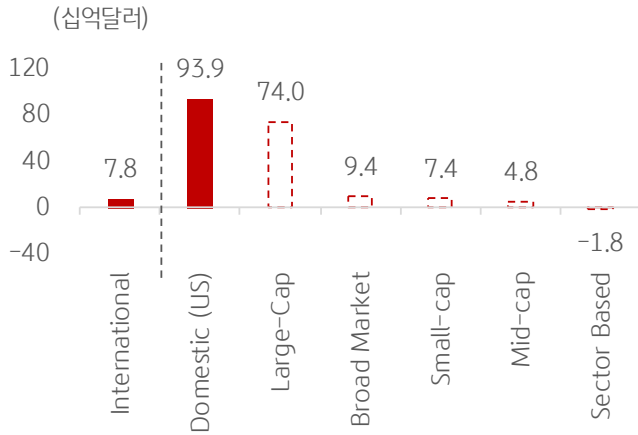
최근 1개월 순유입 상위 ETF

ETF	금액(억달러)
iShares Core S&P 500 ETF	348.1
iShares Bitcoin Trust ETF	78.2
Vanguard S&P 500 ETF	76.4
SPDR Portfolio S&P 500 Value ETF	57.6
SPDR Portfolio S&P 500 Growth ETF	57.4
iShares Core S&P U.S. Value ETF	53.2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51.0
iShares Core S&P U.S. Growth ETF	45.6
iShares S&P 500 Value ETF	45.0
iShares Russell 2000 ETF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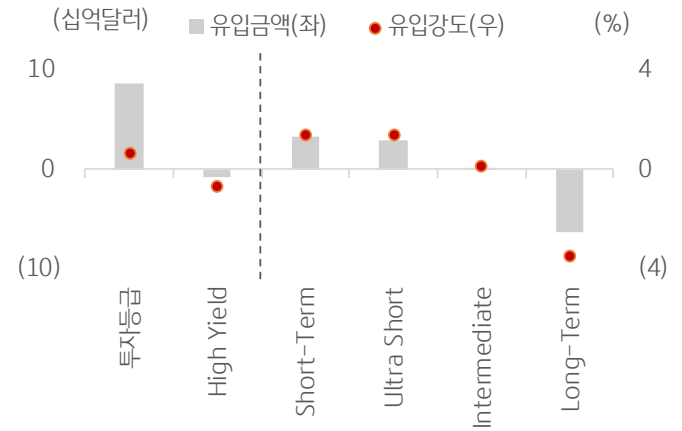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24.12.20 기준

R 미국 ETF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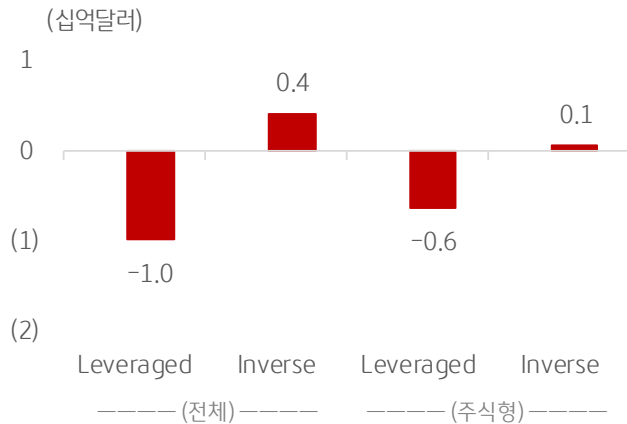
주식형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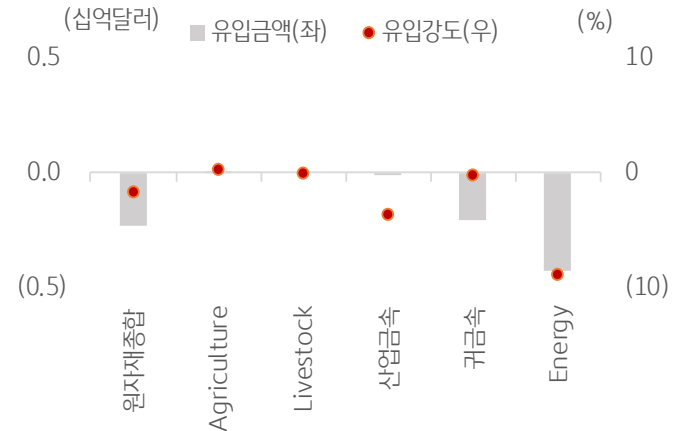
채권형 자금유출입 동향



방향성 투자 자금유출입 동향



원자재 자금유출입 동향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24.12.01 ~ '24.12.20 기준

R 투자위험

<p>국가 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자금 송환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 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상장폐지 위험</p>	<p>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기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동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순자산가치와 가격의 괴리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유동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매매됩니다. 유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및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시장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순자산가치대비 높게 거래되거나 낮게 거래될 수 있으며, 유동성공급자의 헤지수준과 헤지방법에 따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도는 줄어들거나 확대될 수 있습니다.</p>
<p>ETF투자에 따른 과세위험</p>	<p>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 투자자 유의사항

-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